



질염약

요약

질염약은 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질염을 일으킨 감염원에 따라 치료제의 선택이 달라지며, 제형으로는 먹는 약 이외에 질 내에 직접 적용하는 외용제가 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치료해야 하며,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금주해야 한다.

외국어 표기

agent for vaginitis(영어)
膺炎藥(한자)

동의어: agent for colpitis

유의어·관련어: 세균성 질염약, agent for bacterial vaginosis, 칸디다 질염약, agent for Candida vaginitis, 트리코모나스 질염약, agent for Trichomonas vaginitis

질염

질염은 질 분비물, 냄새, 화끈거림, 가려움증, 성교통(성교 시에 나타나는 통증), 배뇨통(소변 볼 때의 통증)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의 감염 또는 염증 상태를 말한다.

세균성 질염

질 내에 정상적으로 살면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는 락토바실리라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대신 다양한 혐기성 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질 내 감염증이며, 가장 흔한 형태의 질염이다. 잦은 성교, 질 깊숙한 곳까지 물로 씻어내는 행위, 자궁경부가 헐어서 생기는 과다한 점액분비 등에 의해 질 내의 산성 환경이 파괴되는 것

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유산균은 한 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서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질 분비물이 누런색이나 회색을 띠고 생선 냄새가 나며, 특히 생리 전후 또는 성관계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 치료에는 혐기성균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는 티니다졸 먹는 약 또는 메트로니다졸, 클린다마이신 외용제를 사용하며, 세균성 질염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성 매개성 질환이 아니므로 배우자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혐기성균(anaerobes): 산소가 없을 때에만 증식하는 세균을 일컬으며, 클로스트리듐속 균이나 박테로이데스속 균이 이에 속한다. 복부내 감염증, 피부조직 감염증, 부인과 감염증, 세균성 패혈증 등 여러 감염증의 원인이 된다.

칸디다 질염

곰팡이균인 칸디다균에 의해 유발된 질염으로 트리코모나스 질염과 달리 성 매개 질환은 아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당뇨병, 항생제 사용,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되는 상황(경구피임약 사용, 임신, 에스트로겐 사용), 면역력 약화 등의 경우에 잘 생긴다. 증상은 흰 치즈 조각 형태의 질 분비물, 외음부 가려움증, 화끈거림, 성교통, 배뇨통 등이 있으며, 외음부 및 질의 홍반, 부종이 있을 수 있다. 치료에는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 먹는 약, 클로트리마졸 외용제 등이 사용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꽉 끼는 옷의 착용이나 합성원단 의복의 착용을 피하고 외음부를 너무 습하지 않게 유지한다.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에 의한 질 내 감염으로 성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트리코모나스는 질 내의 정상적인 산성 환경을 변화시키므로 다른 종류의 질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린 여성의 약 60%에서 세균성 질염이 함께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성관계에 의해 전파되고 전염력이 높으므로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증상은 심한 악취가 나는 고름 모양의 질 분비물이 넘쳐흐르고, 간혹 외음부 쪽의 가려움증도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균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치료에는 항원충제인 메트로니다졸 또는 티니다졸을 먹는 약으로 복용한다.

약리작용

질염약은 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질염을 일으킨 감염원을 박멸하는 것이 치료의 원리이므로 감염원의 종류에 따라 치료제의 선택이 달라진다.

종류

질염을 일으킨 감염원에 따라 항생제, 항진균제, 항원충제 등이 치료제로 사용된다.

항생제

항생제는 세균에 대해 항균작용을 갖는 약물이다. 린코사마이드계 항생제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제가 세균성 질염의 치료에 사용되며,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나타낸다.

항진균제

항진균제는 곰팡이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먹는 약으로 플루코나졸이 있고, 외용제로 클로트리마졸 단일제와 니스타틴, 네오마이신, 폴리믹신B 복합제가 있다.

항원충제

항원충제는 트리코모나스 등 원충의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로서, 단백질과 DNA에 결합해 세포 독성 화합물을 형성하여 살충작용을 나타낸다. 혐기성균에도 항균작용을 가지므로 혐기성균 감염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약물로는 메트로니다졸, 티니다졸 먹는 약과 메트로니다졸 외용제가 있다.

Table 1. 질염약의 종류

종류	약물	효능·효과	제형	제품 예
항생제	클린다마이신	세균성 질염	질크림	크레오신®
항진균제	플루코나졸	칸디다 질염	정제, 캡슐, 건조시럽	디푸루킨®
	클로트리마졸	칸디다 질염	질정	카네스텐®
항진균제+항생제	니스타틴+네오마이신+폴리믹신B	칸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	질연질캡슐	포리지®
항원충제	메트로니다졸	트리코모나스 질염(정제) 세균성 질염(겔)	정제 겔	후라시닐® 메로®
	티니다졸	트리코모나스 질염, 세균성 질염	정제	파소질®

효능·효과

질염약 중 항생제는 세균성 질염의 치료에 사용되고, 항진균제는 칸디다 질염의 치료에 사용되며, 항원충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 및 세균성 질염의 치료에 사용된다. 약물에 따라 효능·효과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법

약물의 종류에 따라 용법에 차이가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용제를 1일 1회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침 전에 질 내에 적용하는 것이 약물을 치료 부위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약효를 높인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치료 목적으로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도 함께 치료하도록 한다.

부작용

질염약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에 차이가 있으나, 먹는 약의 경우 공통적으로 구역, 구토,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항원충제인 메트로니다졸과 티니다졸은 금속성 맛, 소변색의 변화(진한 소변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은 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 항원충제인 메트로니다졸과 티니다졸의 경우, 약물 복용 기간에 술을 마시면 구역,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기간 중 및 투여 후 3일간 반드시 금주해야 한다.
-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항원충제로 치료하는 동안 칸디다 질염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칸디다 질염을 동반한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함께 투여해야 한다.

- 질 내에 적용하는 외용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탐폰, 질내세척법, 세정제 혹은 기타 질 삽입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질 내에 적용하는 외용제가 콘돔과 같은 라텍스나 고무 제품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피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상호작용

질염약의 종류별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다르다. 각 종류별 상세한 상호작용은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염약 중에서 특히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은 플루코나졸로 대표적인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플루코나졸과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약물
플루코나졸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약물	결핵치료제(리팜피신) 등
플루코나졸에 의해 부작용이 증가되는 약물	일부 항정신병약(피모짓),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 편두통약(디히드로에르고타민), 위장운동촉진제(돔페리돈),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트리아졸람) 등